

주간케인

WEEKLY KANE

#09



하승지

[주간케인05] 21.06 특허권 지문 학습지

[주간케인]은 지문 하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독서 실력을 키우는 것은 태도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칩시다.
우리 한 문장, 문단씩 같이 봅시다. 수업이라 생각하고 잘 봐주세요.

01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태도를 몇 가지 정해놓고 볼 겁니다.

1. 문장 단위의 미시적인 정보는 그때그때 정리합시다.
2. 맥을 못 잡겠다면, 문단이 끝났을 때 몇 초만이라도 투자하여 내용을 정리해 볼 겁니다.
→ 끊임 없이 생각할 겁니다. 이 정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PIRAM셈께 배운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급할 겁니다.)
3. **우린 중요한 정보는 어떻게는 머리 속에 박을 겁니다.** 이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상식적인 배경지식은 쓸 겁니다.** 시험장에선 뭐든지 해야죠. 제가 말한 게 배경지식으로 들어있지 않다면 아직 조금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어 독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은 늘게 돼있거든요. 정말 무리하지 않은 배경지식은 쓸 겁니다. 사실 독서를 하면서 배경지식은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떼내는 것은 모순이죠. 걱정 마세요. 정말 '상식' 수준입니다
5. **반응합시다.**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반응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게요.

그리고 하나, 번외로 추가합니다

상식적으로 사고하기

02

제 수업의 특징은 지문 내에서 아주 깊이 파고 든다는 것입니다. 사고력의 한계를 최대한 넓혀주어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숨겨진 전제, 구조 등을 눈치챌 수 있게요. 운이 좋아야 가능하지만, 그 운이 실현되는 빈도가 꽤 많이 높아질 겁니다. (물론, 실전적인 측면도 철저히 챙기며 공부합니다.)

각 문단마다 제가 만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약간 주관성이 내포된 답도 있으니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철저히 독서 공부의 측면에서 쓰셔야 합니다.

각 문제에 대한 해설은 해설지에 녹아있습니다. 해설지를 먼저 쓰고 문제지를 만드니, 모든 답은 해설지 안에 있습니다. 각 해설이 어떤 문제의 답이라고 명시해 놓진 않았습니디. 능동적으로 찾아주세요!

● 학습지 이용 예시

#01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탄수화물
↓
섬유소 ← 비섬유소
2차원적으로 나눈다면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사람의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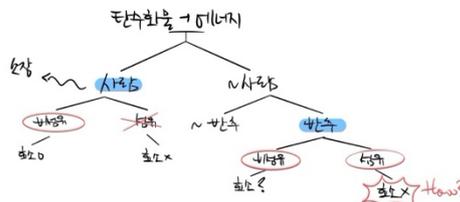
그러면 인간은 죽고
소장에 어떻게든 먹는 건가?

However...
영양학적 관점에서 비이론 단계
비분해하는 경우 많음이다!

(-)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How?
↓
앞으로 전개될 내용!

→ 첫 문단과 함께 정답률 ↑



Q.01 여기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특성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제를 찾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소는 작용하는 대상이 특정된다.

Q.02 위의 문단에선 비섬유소와 섬유소의 예시를 각각 하나씩만 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문단의 특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설명할 때 각 예시를 섬유소/비섬유소로 대신하여 언급할 것이다.

#01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Q.01 초심자는 문장의 모든 단어와 조사에 반응하며 꼼꼼히 읽고, 능숙한 독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압니다. [01:01]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독해하는 편이 좋을까요?

Q.02 개념의 층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01:02]에서 어떤 단어가 이걸 파악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02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Q.01 [02:01]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이항대립이 있습니다. 힌트는 '일반'과 '특수'의 대립.

Q.02 [02:03]을 통해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해주세요.

Q.03 디지털세와 법인세는 어떤 특성이 대립되는지 구조도로 그려주세요.

Q.04 '제반 비용'에 대해 지문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얼 의미할까요? **주간케인03**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Q.05 두 번째 문단은 지문의 흐름상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나요?

#03

○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Q.01 [03:02]~[03:04]의 내용이 [03:01]와 어떻게 대응될 수 있나요?

Q.02 [03:05]가 지문에 왜 있는 걸까요? 또, 제가 이 문장을 왜 주목하는 것 같나요? 해당 문장에서 근거를 찾아주세요.

+ 개인적으로, 이 문장은 제대로 반응한 사람이 약간 불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Q.03 '로열티'는 수입의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 같나요? 근거는요?

#04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Q.01 [04:03]의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a) [04:03]의 정보 세 개를 정리해 주세요.

b) 비슷한 성격의 정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 헛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헛갈릴 것 같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해결될까요?

Q.02 [04:02]와 [04:05]는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고 정리해보세요.

Q.03 [04:05]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같이 그리면 좋습니다. 해당 문장을 바탕으로 간단히 그려주세요!

Q.04 [04:05]는 이해가 힘들어서 관계만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면서 납득이 가능했어요. 국가나 개인의 발전 양상은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따릅니다. 수험생이 노베에서 시작할 때도 이렇게 전략을 세워 공부하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 큰 발전을 이루어냈죠. 이를 대응시켜 본다면 [04:05]의 내용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나 개인 등의 발전 양상을 일반화한 원리를 통찰해주세요!

Q.05 흐름과 주제를 고려하여 본 문단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주세요.

● 지문 정리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을 시사한다.

1. 지문 전체 구조도 작성 : 구조도 그리는 법을 모르시면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한 내용을 점검해봄으로써 어디가 부족했는지도 새롭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과론적인 물음들

Q.01 첫 문단에서 지식 재산의 종류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굳이 한 문단이나 차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업 비밀은 첫 문단 이후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글쓴이라면 첫 문단을 어떻게 정리할 것 같나요?

Q.02 본 지문은 글의 전개 방식이 약간 주목할 만합니다. 각 문단이 나온 이유를 직전 문단과 연결지어 정리해주세요.
(1문단 또한 가능합니다만, 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유용한 독해팁이 될 것입니다.)

+ 특히 4문단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게 화제가 아니었다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점에서 이렇게 반응한 걸까요?

2. 구조 파악 : 시험장에서 지문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지 정리해 봅시다.

먼저 k 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고, 다음 k+1 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들을 찾는다.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계산하여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비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은 떨어진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걸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다.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이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쇄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OIS 기술이 손 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3. 실전 반응 정리

먼저 k 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고, 다음 k+1 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들을 찾는다.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계산하여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비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은 떨어진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건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다.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이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쇄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OIS 기술이 손 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의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4. 정보 필터링 ; 흘려읽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인의 예측과 '확인'만 하는 작업. 중요 개념들은 표시해야 함.)

추론의 성격이 강한 지문에선 정보 필터링이 유의미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설지 마지막에 2. 지문에서 학습한 점들 정리 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에 맞춰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지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보편적인 지문 제목	
→ 지문의 흐름과 주제를 고려한 진짜 제목 (문장)	
목차 등	지문 내용 요약 구조도 아쉬웠던 점들 특이하게 요구한 태도 등등...
다음엔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